

## 결 정

2018 - 305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월 22일자 「조민아, 전태수 자살 암시? “네 선택이니까. 한 번 더 통화할 걸”...네티즌 반응은」 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월 22일자 「전태수 사망, 5년 전부터 우울증? SNS에 "자살? 안녕. 기사내도 되요. 상관없으니"」 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chosun.com) 1월 22일자 「전태수 사망, 5년 전부터 우울증? SNS에 "자살? 안녕. 기사내도 되요. 상관없으니"」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아주경제,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신조민아, 전태수 자살 암시? “네 선택이니까. 한 번 더 통화할 걸”...네티즌 반응은

입력 : 2018-01-22 09:44 | 수정 : 2018-01-22 10:21

결그룹 주얼리 출신 조민아가 배우 하지원의 동생 전태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도를 표했다. 다만 조민아 애도글의 일부 표현이 전태수가 자살한 듯한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일고 있다.

조민아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21일 사망한 전태수에 대해 “내가 아는 태수가 이름이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있어서 설마 설마 했는데 얼굴까지 보고나니 믿을 수가 없다”며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한

테 투정부렸던 것 보다 더 많이 혼자 아팠구나”라며 “미안해. 한 번 더 통화하고, 한 번 더 얼굴 볼 걸.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라고 가슴 아파했다.

조민아는 “네 선택이니까, 태수가 선택한거니까 뭐라고 안 할게”라며 “동갑인데 만날 동생 대하듯 혼낸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오늘 많이 아프다. 더 안아주고 더 들어줬어야 됐는데”라고 후회했다. 조민아와 전태수는 1984년생 34살로 나이가 같다.

조민아는 “거기(하늘나라)선 전태수라는 이름으로 태수하고 싶은 거 다해”라며 “어깨 무겁지 말고, 마음 무겁지 말고, 이제 편해졌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태수야”라고 남겼다.



▲ 하지원 동생 배우 전태수 죽음에 조민아 애도글  
전태수 인스타그램 캡처

전태수의 소속사인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사망 소식을 전하며 “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세로 꾸준히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돼 최근까지도 연기자로서 복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던 중이었다”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족들과 지인들 모두 비통함 속에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태수의 사망 원인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전태수는 불과 열흘 전에도 SNS를 통해 자신의 팬들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돼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태수는 누나 하지원에 대해 “튼튼한 누나가 있어 힘이 된다. 누나가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돈독한 애정을 표현해왔다. 평소 전태수에 대해 “자랑스럽다”던 하지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슬픔에 잠겨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태수는 그동안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사랑하기 좋은날’, ‘왕과 나’, ‘몽땅 내사랑’,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제왕의 딸, 수백향’, ‘은혼일기’ 등에 출연했다.

한편 조민아의 애도글에 네티즌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sujk\*\*\*\*’는 “나는 정말 슬픈데 SNS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cgm9\*\*\*\*’는 “보여주기식 인스타”라고 올렸다. 특히 조민아 “네 선택”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ljew\*\*\*\*’는 ““네 선택이니까”라는 말은 자살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며 “소속사 원문 어디에도 자살 관련 언급은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을 SNS에 손가락 가며이 놀렸다”고 지적했다. ‘92jj\*\*\*\*’는 “정말 친했던 사이이면 저런 글 SNS에 쓸 시간에 장례식장 달려가서 밤새면서 자리 지켜주겠다”며 “자살한 사람한테 네 선택이니까 뭐라고 안한다니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tjda\*\*\*\*’도 “진짜 니 선택이라니? 미쳤느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조민아의 전태수 애도글 전문

(이하 생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2500014&photoIdx=2>>

(아주경제)= 『전태수 사망, 5년 전부터 우울증? SNS에 "자살? 안녕. 기사내도 되요. 상관없으니"』

전기연 기자

입력 : 2018-01-22 08:01 수정 : 2018-01-22 08:01

배우 전태수가 사망한 가운데, 5년 전 우울증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전태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밤인가? 잠이 오지 않는다. 이상한 어지러움과 복잡한 두근거림"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하 생략)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http://www.ajunews.com/view/20180122074708979>>

(스포츠조선)= 『“전 죽으면 된다” 故 전태수, 자살 암시글 해프닝…“억측”

기사입력 2018-01-22 11:37:30

(본문 생략)

<스포츠조선닷컴>』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1230100168650011996&servicedate=2018012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걸그룹 주얼리 출신 조민아가 배우 하지원의 동생 전태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도를 표했다는 내용이다. 대다수의 신문사가 전태수의 죽음에 대해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기사들은 제목에 굳이 자살이라고 명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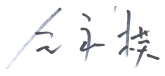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이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목에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준중」 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기 용 담
위원	정 승 호	정 승 호
	장 명 국	장 명 국
	이 동 현	이 동 현
	장 인 철	장 인 철
	김 규 식	김 규 식
	강 희	강 희
	하 윤 수	하 윤 수

김 영 모   
박 현 갑   
박 미 경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